

e 뉴스레터는...

e 뉴스레터 제6호는 국회의 제1차 체육통합포럼(7. 16), 대한체육회의 통합 알아가기 직원교육 제1차 “화! 통!”(7. 17), 대한체육회의 2015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7. 22) 등 체육단체 통합 과정의 변곡점이 될 지난 일주일 간의 주요한 일정 및 결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뉴스레터 말미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e 뉴스레터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15년도 대한체육회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7.22) 결과

(심의) 체육단체의 합리적 통합 방안 → 의결

▶ 주요내용

연번	구분	내용
1	명칭	- 대한체육회 (영문: Korean Olympic Committee)
2	경기단체·시도체육회 지위	① 경기단체는 통합체육회의 회원 ② 시도체육회는 통합체육회의 지부
3	선거인단·대의원총회·이사회 등 구성	- 올림픽종목 대표 과반수 포함
4	회장 선출	- 매하계올림픽후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
5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직원에 대한 처우	- 사무처 직원 고용승계 및 정부의 급여 지원책 마련 등 처우개선
6	발전방향	① 체육단체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 지원의 기반 마련 ②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및 지방체육 육성 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발전 방안 제시 ③ 전문체육-학교체육-생활체육 연계 발전방향 제시 ④ 전문체육 성과의 토대 위에 스포츠 복지 패러다임 확산
7	통합방식	① 통합체육회장 선출 일정은 리우올림픽 이후로 조정 ② 정부 통합방식, NOC 자치권 침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중립 유지 건의

(심의) 대한체육회(KOC) 통합추진위원회 위임사항 → 의결

▶ 주요내용

- ① 정부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개선(안)
- ② 정부 통합준비위원회 의결방법 개선(안)
- ③ 시도체육회장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당연직 선임(안)
- ④ 상향식 통합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
- ⑤ 기타 통합추진 상의 경미한 사항

(기타) 문대성 IOC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재개정 관련 설명

▶ 주요내용

- 2016년 통합은 현실적으로 합리적 통합이 어렵다는 데에 교문위 및 국회가 적극 공감하여 안민석 의원과 법 재개정을 준비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예정)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문대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 초안(2015. 7. 16.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07.

발 의 자 :

찬 성 자 : 인

법률 제 12348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48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통합체육회” 설립에 관한 조항에 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③ 준비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동시 추천하는 5명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④ 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요경과및향후일정

대한체육회, 창립 95주년 기념식 개최

- 일자: 2015. 7. 10.(금)
- 장소: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

서상기·안민석 의원 주최 제1회 체육통합포럼 개최

- 일자: 2015. 7. 16.(목)
- 장소: 국회 제8간담회실
- 참석대상: 전국 시·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 주제: 체육단체 통합과 지역체육회의 역할
- 주요내용
 - (주최측) 체육단체 통합 관련 법안 주요 경과 설명,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 제시 및 의견 개진 요청(1페이지 참조)
 - (시도) 통합 시기 조정, 통합준비위원회에 지방체육 대표 참여, 상향식 통합 건의 등

대한체육회, 통합 알아가기 직원교육 제1차 “화! 통!” 개최

- 일시: 2015. 7. 17.(금) 16:00
- 장소: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 참석자: 대한체육회 직원
- 주제: 언론에서 본 체육단체 통합과 대한체육회
- 강사: 고진현 (스포츠서울 부장)
- 주요내용
 - 상생 기반의 주체적 통합
 - 체육개혁의 중심으로서 선제적 대응 필요
 - 대한체육회 역할에 대한 소명 의식, 책임윤리 기반으로 체육의 새로운 가치 발굴
 - 과거가 아닌 미래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지향

대한체육회, 2015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 일시: 2015. 7. 22.(수) 10:00
- 장소: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서상기·안민석 의원, 제2회 체육통합포럼 개최(예정)

- 일시: 2015. 8. 13.(목) 16: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대상: 경기단체 사무국장 및 종목별연합회 사무처장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장덕수, 김성수, 백남준, 최두선 등 민족지도자급 인사들이 스포츠의 민족성에 주목하여 국민의 강건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 조선체육회를 창립했다.”

-대한체육회 창립 95주년 기념식 중 이연택 고문의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 낭독 전 말씀에서 발췌-

조선체육회 발기인 90여명 가운데 순수한 경기인 출신이 10명에 지나지 않았고, 민족지도자급 인사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볼 때 조선체육회의 민족적·자주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체육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시점인 지금, 처음의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스포츠 정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합 관련 주요 기사

- ▶ “통합을 말하는 2015년 대한민국 스포츠 자화상, 현실은 분열” (7월 10일 스포츠조선, [자세히 보기](#))
-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체육단체 통합, 상향식 추진해야” (7월 10일 뉴스1, [자세히 보기](#))
- ▶ “대한체육회 통합 점점 찾을까...올림픽이후 통합에 집중” (7월 21일 스포츠서울, [자세히 보기](#))
- ▶ “통합 논란부터 검찰수사 압박, 수난의 체육회 통합준비위 참여” (7월 22일 스포츠조선, [자세히 보기](#))
- ▶ “대한체육회, 체육단체의 합리적 통합 방안”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7월 23일 국제뉴스, [자세히 보기](#))
-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비리 의혹’ 전면 부인” (7월 23일 스포츠동아, [자세히 보기](#))
- ▶ “갈등의 체육단체 통합, 국회가 나섰다...법률안 재개정안에 두 가지 묘수” (7월 23일 스포츠서울, [자세히 보기](#))

대한체육회에 묻다 - 통합, 이것이 궁금해요!

체육회와 문체부가 갈등관계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앞으로 통합 관련하여 문체부와 어떻게 조율을 하나갈 예정인가요?

문체부의 견해나 입장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의 의견은 대의원을 비롯한 시도체육회 등 수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인 만큼, 그 결과를 문체부에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특히 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된 만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갈등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문체부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참여로 제작됩니다. 통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